

#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민주 김윤덕 의원,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회 “각 정당 등 대학 발전 위해 노력해야” 정책 청원 혁신도시법 개정 통한 공공기관 인재 채용 확대 등 발표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청원문 발표 전 여는 말을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문을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을 초과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총장협의회 연합이 발표한 것은 정책청원에 정부, 각 정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대한민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현재 지역대학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불가한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5대 핵심 청원을 발표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성장 동반자”... 한·GCC FTA 협상 재개 합의

### 사우디 방문 문 대통령,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 접견 10년 이상 멈춰있던 FTA 협상... 문 대통령 방문 계기 재개 GCC와 협력강화 기반 마련... 수소·의료분야 협력 기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10년 이상 중단됐던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리디아의 한 시너호텔에 마련된 나예프 총장과 그의 접견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GCC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정 의용 외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박준용 주(사우디)대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형진 국가인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GCC 측에서는 나예프 총장을 비롯해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총괄대표, 바드르 알파를 미디아인터커뮤케이션 고문 슬라만 알 안베리 사무총장 보좌관이 함께했다.

접견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예프 총장과 한·GCC 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이를 문 대통령이 나예프 총장 접견 자리에서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뤄왔다”면서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GCC와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경제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의 사무총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GCC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정보통신)과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GCC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양측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예프 총장은 “한국과 GCC는 그간 역내 인보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표와 원칙과 기초 아래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양측 모두에 호혜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 2014년에 체결된 MOU(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며 “2018년과 2020년 공동계획에 마련했고 그런 계획 아래 앞으로 2027년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GCC FTA는 2007년 첫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협상이 중단됐고, 10년 이상 협상 재개를 위한 적절한 계기를 찾지 못했었다. 문 대통령의 중동 방문 계기에 재개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GCC와 FTA 협상 재개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GCC는 2010년 당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들과도 FTA 협상을 중단했지만 공식적으로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GCC와) EU,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국과는 아직 협상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는 정식으로 협상 재개 선언이 이번 (대통령 방문) 계기에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GCC는 이번 FTA 협상 재개 합의에 따라 가능한 빠른 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 1/4분기 중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걸프협력회의(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지역 협력체다. 중동 걸프 지역 내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포괄한다. 한국의 대(對) 중동 교역의 78% 이상이 GCC 국가들과 이뤄지는 등 핵심 교역 대상국이다. 2020년 기준 GCC 교역액은 466억 달러, 중동 교역액은 584억 달러에 달한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재개로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권인 GCC국가들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 개편 움직임에 있는 GCC국가들과 수소 신재생 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협력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호상 기자

## 李·尹 TV토론 합의 여·야, 토론 일자 두고 ‘줄다리기 중’

### 민주 “27일 밤 TV토론” 국힘 “31일에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토론 일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주당 선대위 박주만 방송토론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방송사에 TV토론 개최를 요청했고 오늘 드디어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며 “27일 후보 간 양자토론은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27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한다는 것만 결정됐다”며 토론 주제와 방식 등은 추후 물밑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 일자에 대해서는 확정적 사설로 공지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정한 토론 일정과 관련해 “자살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설 연휴 중인 오는 31일에 양자 TV토론을 열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경 전에 토론하기로 한 것을 협조 요청한 공문을 공중파에 보냈고 의견이 (27일로) 왔는데 그대로 릴리스(발표)한 것 같다”며 날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식사를 해서 3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간대는 (오후) 10시 넘어서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능한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

## 민주 전주갑 지역위 대선 승리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는 19일 전주교대 회의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통령 만들기 완성을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이병도·진형석 도의원, 김원주·박병술·이기동·이남숙·송승용·최용철 전주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완수를 결의했다.

김윤덕 위원장은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호남과 영남, 전북과 전남 등 3중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소신과 강단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전북이 처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 중이며, ‘전북 발전을 위한 로드맵’만 있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위원장은 “전북이 계속 낙후 지역으로 남느냐 새만금을 비롯해 탄소·수소 등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전북 대전환 시대를 여느냐는 이번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전주갑 지역위원회 당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드기에 앞장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주갑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반드시 당선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더 크고 더 젊은 도시 만들 것”

### 최정호 전 차관, 익산시장 출마 선언 시민 시대 개막 등 7대 정책대안 제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는 6월 1일 익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큰 익산, 젊은 익산’이라는 익산의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익산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익산이 지방소멸 시대를 타개해 나가는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익산을 KTX 메가 경제권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최 전 차관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희망도시, ▲사람이 풀려드는 축척도시(365일 약자지결),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도시, ▲농민들이 대접받는 농생명 수도 완성, ▲사통팔달 교통관문도시 구축, ▲이퍼트 분양가 대폭 인하 및 주거복지 실현 ▲시민의 시대 개막 등의 7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 전 차관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5·6 산업단지를 시급히 개발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익산을 대표할 국가대표급 다양한 축제를 연중 개최하겠다”며 “구도심과 주변에 청년IT 인큐베이션과 벤처 밸리를 원형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에 UAM(도심항공 서비스)을 추가해 글로벌 최초의 KTX-AIR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공영개발을 제도화해 아파트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100%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주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대혁신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가 예산을 끌어오고 기업을 유치하는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익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도 정부부처를 지낸 참신하고 능력 있는 최정호가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덧붙여, “저는 2022년 지금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고향 익산을 위해 진정한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포효하는 김제... 성장시대 활짝”

### 정호영 전 도의회 부의장, 김제시장 출마 선언 상황만 배후 산단·물류단지 조성 등 공약 제시

정호영(前)전북도의회 부의장은 19일 김제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과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양극화·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정호영이 가진 미래성장전략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끊어 비약적인 김제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김제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전 부의장은 “김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근본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교육의 붕괴·문화여가시설의 빈곤에 있다”고 진단하고 “도시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통해 김제미래 발전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새만금신항만의 김제관항위수도를 이끌어내 신항만과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물류단지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직 있는 공공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소득감소로 한숨 쉬는 농민들과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지역업자들의 생존문제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구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성화 마이스터대학과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요촌·교월동에 유치하는 등 구도심에 공공시설을 집적화하고 김제공공부지의 관리전환 추

진과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종자산업육성을 통해 종자주권회복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은 김제시장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제=곽노태기자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김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필수'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288-9700